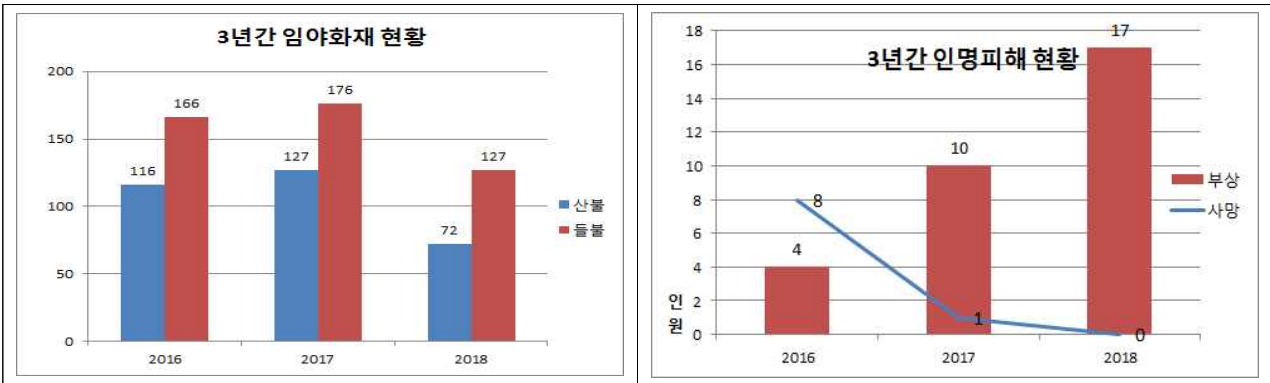


3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봄철 영농기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 주의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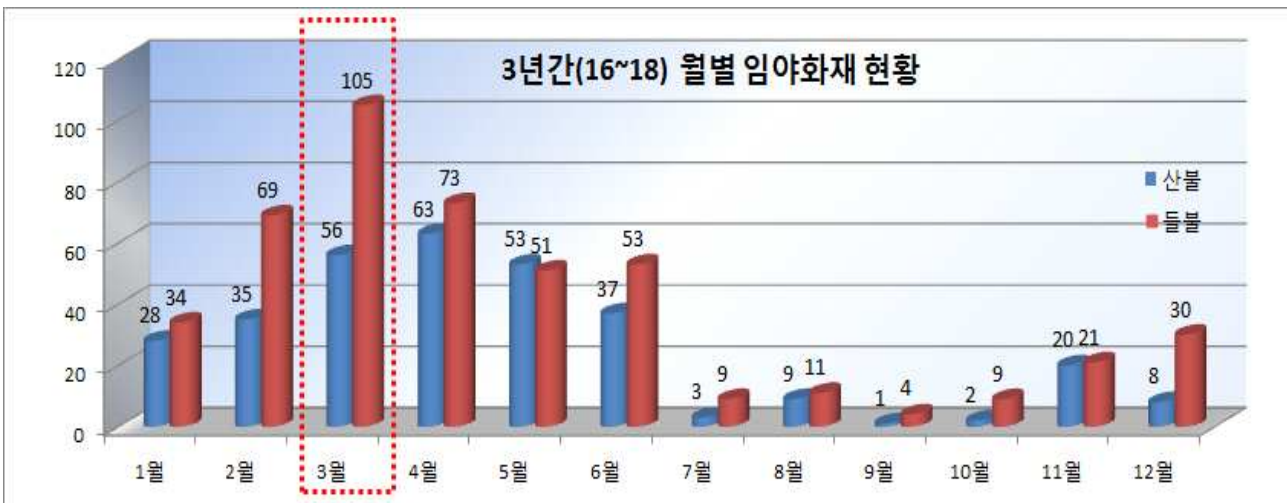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발생 현황(2016~2018년)



○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84건이 발생하여 14,680,173천원(1,656.8ha)의 재산피해와 27명(사망1, 부상26)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임야화재 784건 중 산불이 40.18%(315건), 들불이 59.82%(469건)로 나타났으며, 2017년도 발생건수는 강수일수 감소와 건조일수의 증가 등으로 2016년 대비 7.45%(21건) 증가하였으며, 강릉, 삼척 대형 산불로 피해액 및 인명피해도 대폭으로 증가하였다. 2018년은 전년도에 비해 34.3%(104건)이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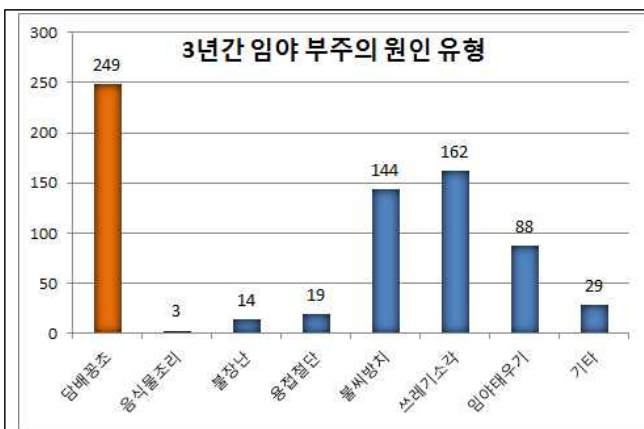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월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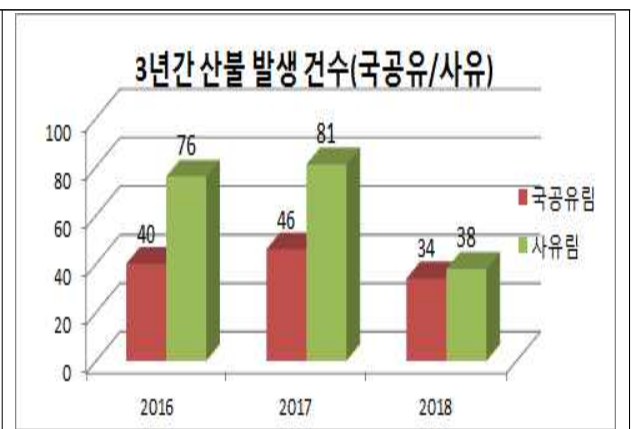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임야화재 월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784건 중 3월 20.5%(161건), 4월 17.3%(136건), 2월과 5월 13.3%(104건)로 2월에서 5월 봄철에 가장 집중되었고, 인명피해도 3년간 총 부상자 26명중 27%(7명)가 3월에 발생하였다.

연도별	건수	피해액 (천원)	피해면적 (㎡)	인명피해	
				사망	부상
계	161	5,077,950	4,574,778		7
2018년 3월	33	4,826,116	3,598,640	-	1
2017년 3월	77	250,141	842,990	-	3
2016년 3월	51	1,693	133,148	-	3

- 3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화재 161건 중 산불은 34.8%(56건)이고, 들불은 65.2%(105건)으로 나타났다. 들불(들판, 과수원, 묘지 등)은 3년간 총 469건의 화재중 3월에 22.38%(105건)가 발생하였다.(16년 30건, 17년 48건, 18년 27건)
- 산불화재는 3년간 총 315건으로 사유림이 전체의 61.9%(195건)를 차지했다. 3년간 3월중에 발생한 산불 51건중 국·공유림 15건(29.41%), 사유림 36건(70.58%)으로 나타났다. 2018년은 전체 산불 화재 72건 중 사유림이 38건(50%)을 차지했다.
- 들불 발생원인은 담배꽂초, 쓰레기 소각, 농업부산물 및 논·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가 전체의 95.7%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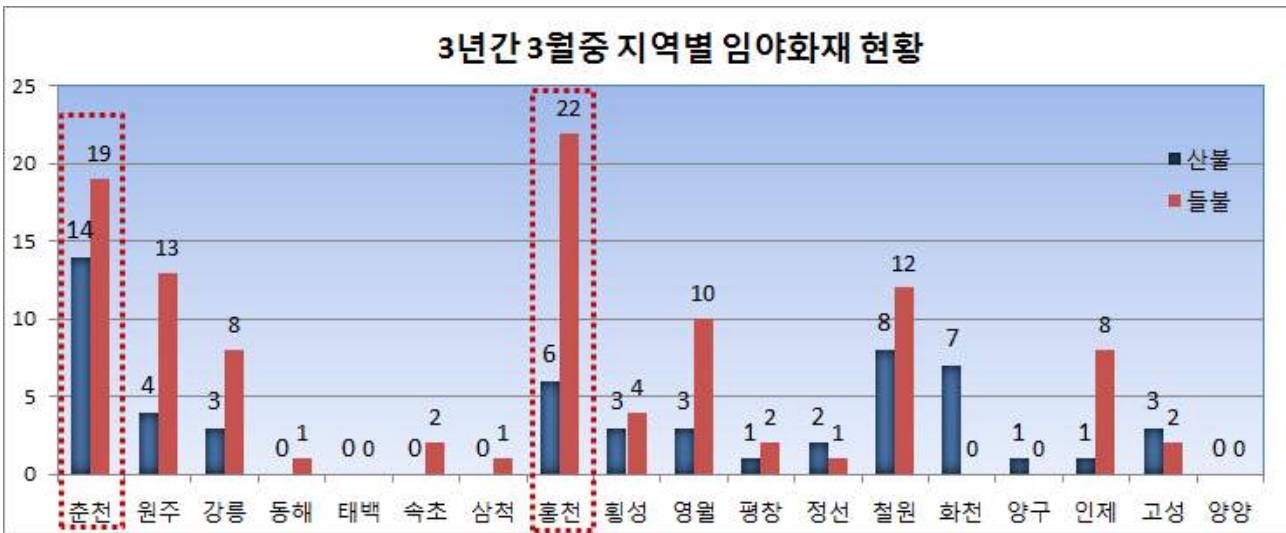
[3년간 임야화재 부주의 유형]



[3년간 산불 장소별 현황]

□ 지역별 임야화재 발생

연도별	건수	지 역 별																	
	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계	161	33	17	11	1	0	2	1	28	7	13	3	3	20	7	1	9	5	0
2018년 3월	33	7	5	3	0	0	1	0	4	2	3	1	1	4	0	0	1	1	0
2017년 3월	77	19	5	3	1	-	-	1	15	3	8	2	-	7	3	1	6	3	-
2016년 3월	51	7	7	5	-	-	1	-	9	2	2	-	2	9	4	-	2	1	-



- 3월중에 발생한 161건의 임야화재 중 춘천 20.49%(33건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홍천에서 17.39%(28건), 철원 20건, 원주 17건, 영월 13건, 강릉 11건, 인제 9건, 화천 7건, 고성 5건, 속초 2건, 동해, 삼척, 양구 각각 1건 순이었다.
- 3월중 임야화재 종류별·지역별 발생율을 분석해 보면, 산불은 춘천 25%(14건) 철원 14.29%(8건), 화천 12.50%(7건), 홍천 10.71%(6건), 원주 7.14%(4건), 강릉, 횡성, 영월, 고성 각각 5.36%(3건), 정선 3.57%(2건), 평창, 양구, 인제 1.79%(1건) 순이었고, 동해, 태백, 속초, 삼척, 양양은 3년간 3월중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3월중 들불은 홍천 20.95%(22건)로 가장 많았고, 춘천 18.10%(19건), 원주 12.38%(13건), 철원 11.43%(12건), 영월 9.52%(10건), 강릉, 인제 각각 7.62%(8건), 횡성 3.81%(4건), 속초, 고성, 평창 각각 1.90%(2건),

동해, 삼척, 정선 각각 1건 순이었다. 태백, 화천, 양구, 양양에서는 3년간 3월중 들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들불화재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논·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봄철 산불예방(안내문)

-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.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,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
-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, 야영,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.
-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·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,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행중 산불발견시 대처요령

- 산불이 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피
- 산불 발견시 119, 산림관서, 경찰서로 신고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.
-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, 저지대, 연료가 없는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.

-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.

산불예방 참여요령

-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,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.
- 입산 시에는 성냥,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.
-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- 성묘,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.
-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,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.
-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, 산불조심을 당부한다.
-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.